

# 濟州島 古文書의 地名 試攷

- 특히 소지명을 중심으로 -

강영봉 \* · 오창명 \*\*

〈차 례〉

1. 머리말
2. 지명 해독
3. 마무리

## 1. 머리말

제주 지역 고문서에 나타나는 지명은 적어도 고문서가 쓰일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불렸던 것을 한자차용표기로 쓰거나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고문서에 쓰인 지명의 대부분은 불완전한 한자차용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해독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고문서를 해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지명 해독의 어려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자 표기의 지명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고문서의 한자 지명을 해독해내면 고문서를 올바르게 해독하고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 지금도 민간에서 잘못 해독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상당히 바로 잡을 수 있다.

지명의 한자차용표기는 우리말 지명을 불완전하게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말을 추정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동원하는 것이 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재의 주민들, 특히 주변에 사는 노인들의 음성을 수집하여 대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고문서 이외의 고문헌 및 고지도,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비문의 표기와 대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말 지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지명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소리(음성)요, 다른 하나는 뜻(의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지명이 가리키는 지형지물이 있다. 지명에 따라서는 지형지물이 없이 유래만 전해오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는 지형지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도 있고, 본래부터 지형지물은 없이 지역민의 사상적인 것에 따른 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형지물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리와 뜻, 그것이 가리키는 지형지물 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지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제주지명을 제대로 해독하려면 중세국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물론 제주방언에 관한 충분한 지식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바로 해독해내려면 한자차용표기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고문서의 지명은 소리와 뜻, 지형지물 모두가 확실한 것, 소리와 지형지물은 파악되나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 뜻과 지형지물은 파악되나 소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뜻과 소리는 파악되나 지형지물이 확실하지 않은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확인되어 발표된 고문서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해독하는 것을 목적이다. 이러한 지명 해독을 바탕으로 하여 고문서를 완전하게 해독하는 것은 물론 지명 표기의 변천과 지명 변천사 등을 파악하는 것을 2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기본적인 자료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고창석(2001), 『제주도 고문서 연구』(탐라문화학술총서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김지홍(1986),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호.

제주대학교박물관(2002), 『고문서집성』.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지명(小地名)’이라는 말은 ‘마을 이름 따위와 같은, 작은 지역의 이름’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각 마을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의 이름’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곧 ‘마을 이름’ 이상의 단위는 대지명으로 파악하고, 마을 이름보다 작은 지역의 이름을 소지명으로 파악하였다.

## 2. 지명 해독

### 1) 소리와 뜻, 지형지물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것

① 黑路浦[검은길개] > 黑路村[검은길마을], 今勿路里[금을길마을] > 사계리(沙溪里)

乾隆五十七年正月 日壬子式年戶口單子/第二中面今勿路里<사계리 능성 구씨 종가의 고문서>

道光二十年正月 日庚子式戶口/第二中面沙溪里<사계리 능성 구씨 종가의 고문서>

今勿路里는 '금을길마을'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沙溪里는 '사계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今은 '금' 또는 일부음 '그'의 음가자 표기, 勿은 '물'의 음가자 표기, 路는 '길'의 제주방언 '질'의 훈독자 표기, 里는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오창명(1998:506)에서,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에 黑路浦,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黑路村, 『제주읍지』(제주읍지, 대정군, 중면)에 今勿路里,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읍지』 등에 沙溪里로 표기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의 대정읍 사계리 지역은 원래 '금을길개·검은길개' 정도로 부르다가 마을이 형성되면서 19세기 중반까지 '금을길마을·검을길마을·검은길마을' 정도로 불렸고, 이것을 한자차용표기로 黑路浦[검은길개] > 黑路村[검은길개] > 今勿路里[금을길마을]로 표기하였고, 19세기 중반부터 今勿路里는 沙溪里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고창석(1996)에서, 道光 20년의 「今勿路里尊位警民長書目」을 통해 1840년부터 호적을 개수할 때 今勿路里를 沙溪里로 바꾸어 쓰겠다고 하고 관부의 공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대정사계리호적중초』에서 沙溪는 道光 29년(1849) 戶口中草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고창석(2001)의 <사계리 능성 구씨 종가 고문서>를 보면, 道光 17년(1837) 호구에는 今勿路里라 했고, 道光 20년(1840)의 호구에는 沙溪里라 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로써 마을 이름이 1840년에 바뀌었

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지금은 마을 이름이 사계리로 많이 알려지고 있으나, 고로들을 통해서 볼 때 '검은질'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한자표기 黑路는 바로 '검은질'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今勿路는 '금을질' [그물질] 정도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는 '검은질' 보다는 '금을질'로 불렸을 검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사계리 위쪽 길은 숲이 우거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유난히 검게 인식한 데서 '금을질' 또는 '검은질'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② 吾造味洞·伍造尾洞[오좁윗굴]

金承云處買得田吾造味洞東邊皮車拾參斗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伍造尾洞具金穎彬處買得田車種壹石參斗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吾造味洞·伍造尾洞은 '오좁윗골, 오좁윗굴'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吾와 伍는 '오'의 음가자 표기, 造는 '조'의 음가자 표기, 味와 尾는 '미'의 음가자 표기, 洞은 '골' 또는 변음 '굴'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좁윗골'은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지명이다. 민간에서는 '오조매골' (『한국지명총람 16』), '오즈미골물' (『서귀포시지명유래집』) 등으로 남아있다. 물의 양이 오좁과 같이 적게 나는 골짜기의 물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③ 廣所只·廣迫只·汝朴只·廣怕[넙악이·넙엑이·넙억이]

價本段祖上流來大浦里西廣所只具車種壹石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廣迫只具高元福處買得田車種壹石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祖上傳來耕食是在汝朴只具皮車肆斗付<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價本段矣父相換田廣?具皮車壹石付只<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廣所只·廣迫只·汝朴只·廣怕 등은 '넙악이·넙엑이·넙억이'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한 것이다. 廣은 '넙-'의 제주방언 '넙-'의 훈독자, 汝는 '너-'의 훈가자 표기, 所는 '바' 또는 유사음 '벼, 베'의 훈가자, 朴은 '박'의 음가자 표기, 怕은 오늘날 한자음이 '파'이지만 평음 '바'의 음가자 표기,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넙엑이’ (민강에서는 주로 ‘너베기’로 표기한다.)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지명으로, 민간에서는 ‘넙억이, 넙엑이’ 등으로 실현된다.

원래 소리는 ‘넙억이’나 ‘넙엑이’(넙+-억·-엑+-이)[너베기] 정도로서, ‘넙은 곳’이란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억’은 중세어에서 ‘터럭, 주먹’과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이 경우 형용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사 뒤에 덧붙는 접미사이다.

④ 五老洞·呑路穴·呑老穴[오로흙]

價本段穡達里東南五老洞員父主買得田皮牟六斗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呑路穴員李萬處買得皮牟三斗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今岳西邊呑老穴田員一庫皮牟捌斗付<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五老洞과呑路穴·呑老穴 등은 ‘오로흙’ 또는 ‘오로콤·오로코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五老와呑路는 두더지의 제주방언 ‘오로’의 음가자 결합표기이고, 洞과 穴은 ‘굴’ 또는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흙’의 혼독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색달동 동남쪽과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오로흙’ 또는 ‘오로콤·오로코미’는 ‘오로’(두더지)가 잘 다니는 흙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오로굴’, ‘오로굴’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⑤ 道亦泉伊·道欲泉[도역세미·도욕세미]

資生無路故道亦泉伊員父母與己祭畚租種合陸升付<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價報段出處無路故母任衿給畚道欲泉員畚種陸升付<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道亦泉伊·道欲泉은 ‘도역세미’ 또는 ‘도욕세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道는 ‘도’의 음가자 표기, 亦은 ‘역’의 음가자 표기, 欲은 ‘욕’의 음가자 표기, 泉은 ‘샘’의 옛말 ‘심’의 혼독자 표기, 伊는 제주방언 ‘세미’의

말모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한 지명으로, 민간에서는 '도육세미, 도육세미' 등으로 불린다. '물렛가락의 뒷몸에 끼워서 고정한, 두 개의 매듭 같은 물건'(물렛줄이 그 사이에 걸려서 돈다.)을 제주방언으로 '도육'(표준어는 '고동')이라고 하는데, 샘의 위치가 그것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⑥ 加時磊[가시머들]

加時磊員 粟種伍升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加時磊는 '가시머들'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加時は '가시'의 음가자 결합표기로, 磊는 '머홀다'의 명사형 '머홀' 또는 이의 변음인 '머들'의 혼독자 표기이다.

중문동의 한 소지명이다. '가시머들'은 가시덤불과 험한 돌무더기 등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⑦ 於頭溫旨[어두온머르·어두온머를]

報給無路故勢不得已祖上田於頭溫旨員粟種陸升落只田<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於頭溫旨는 '어두온머르·어두온머를'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於是 '어'의 음가자, 頭는 '두'의 음가자, 溫은 '온'의 음가자, 旨는 '머르·머를'의 혼가자 표기이다.

중문동 동쪽에 있는 언덕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어둔머르, 어두머르' 등으로 불린다.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인상을 풍긴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두머르' 또는 한자로 魚頭洞이라고 표기하고, 지형이 바닷고기의 머리와 같이 생긴 곳이라 해석하고 있다.

⑧ 廣王芻·廣枉芻[넙은왕들], 廣分芻[넙은들]

婢愛今要用所致祖上流來田廣王芻員粟種參升付田庫<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

답문서)

在於中文里所謂廣枉芑員粟種參升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廣分芑員衿得田粟種參升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廣王芑·廣枉芑은 '넙은왕돌'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廣分芑은 '넙은돌'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廣은 '넙-'의 제주방언 '넙-'의 훈독자, 分은 '분'의 음가자 표기, 王과 枉은 '왕'의 음독자, 芑은 '돌'의 음독자 표기이다.

중문동 서북쪽에 있었던 돌을 지칭하다가, 그 일대를 이르는 지경 이름으로 변화하였다. 큰돌을 뜻하는 '왕돌'이 있는 일대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⑨ 眞木同山·此南同山[츠남동산]

矣三寸之夫李厚發處相換是在田庫段本里眞木同山員粟種貳升付只內<장전리 강태복 씨 소장의 전답문서>

長田里西北邊此南同山員粟種伍升付只田庫<장전리 강태복 씨 소장의 전답문서>

眞木同山·此南同山은 '츠남동산'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眞은 '츄>참' 또는 변음 '츠>차'의 훈가자 표기, 此는 '츠>차'의 음가자 표기, 木은 '나무'의 제주방언 '남, 낭'의 훈독자 표기, 南은 '남'의 음가자 표기, 同山은 '동산'의 음가자 결합표기이다.

애월읍 장전리의 한 소지명이다.

⑩ 邊幕里[곶막마을]

左面邊幕里住第九統一戶閑良鄭成 大年五十八<고문서집성>

邊幕里는 '곶막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邊은 '곶'의 훈독자 표기, 幕은 '막'의 음가자 표기, 리는 '막술>막술>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구좌읍 동북리의 옛 이름이다. 지금까지는 '곶막'으로 얘기되어 왔으나, 옛 한자 표기를 보면 '곶막[곶막]'이 원래 소리였고, '곶막'은 이의 변음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글학회(1986:417)의 '간막'에서 '긱막[근막]'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의 막'이란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⑪ 大泉味[한세미]

今岳西底所謂梁司果家基大泉味員田庫<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大泉味는 '한세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한림읍 금악리의 한 소지명으로, 지금도 '한세미, 한세미왓'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⑫ 銀介桶·殷浦通[은개통]

衿得畝在於大靜江汀境銀介桶員<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吾矣妻衿得畝在於大靜殷浦通員租種肆升付<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銀介桶·殷浦通은 '은개통'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소지명으로, 지금도 '은개통'이라 한다.

⑬ 廣寺田[넙은절왓]

祖上傳來多年耕食爲在廣寺田員粟種參斗付只乙向前永永許給爲去乎<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廣寺田은 '넙은절왓'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중문동의 한 밭 이름이다.

2) 소리와 지형지물은 파악되나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

① 邊老川岳·別老川岳·別老岳[베룻내오름], 別伊川岳[베릿내오름], 卞限川·別老川[베룻내·베릿내]

價本報給段買得邊老川岳員皮牟五斗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矣母衿得是在卞限川員壹片畝租種壹斗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문서)

吾矣母主衿得田中文里西邊別老岳員皮牟斗付只田庫<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妻邊祖上流來田別老川岳北邊員皮牟壹石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  
답문서>

別老川員衿得田牟種柒斗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矣名下衿得田別老川員牟種壹石付只<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價本段自起買得別伊川岳東南洞員牟種五斗付<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邊老川岳·別老川岳·別老岳 등은 ‘베로내오름’ 또는 ‘베룻내오름’, 別伊川岳은  
‘베릿내오름’, 卞限川·別老川 등은 ‘베룻내·베릿내’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  
기로 나타낸 것이다. 邊은 ‘변’의 불완전한 음 ‘벼’ 또는 이의 변음 ‘베’의 음가  
자, 別은 ‘별’의 제주방언 ‘벨’ 또는 일부음 ‘베’의 음가자 표기, 老는 ‘로’의 음  
가자,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 限은 ‘한’의 변음 또는 일부음의 음가자 표기, 川  
은 ‘내’의 혼독자,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베룻내오름’ 또는 ‘베릿내오름’은 중문동 서남쪽에 있는 성천악(星川岳)을 이  
르고, ‘베룻내’ 또는 ‘베릿내’는 이 오름 옆을 흐르는 내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주  
로 ‘베린내오름’, ‘베릿내’라고 한다. 오늘날 지도에는 성천악(星川岳), 으로 ‘베  
로’ 또는 ‘베리’는 ‘벼루’(硯)의 제주방언이라는 설도 있고, ‘벼랑’ 또는 ‘낭떠러  
지’, ‘절벽’ 등의 뜻을 가진 옛말 ‘비레·비리>비레·벼로’[崖]의 변음이라는 설  
도 있다. 필자는 후자로 본다.

② 不毛巨[불목케], 佛木堂[불목당]

價本段妻家衿得田皮牟肆斗付只<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價本段姜得宗處買得是在佛木堂員粟種壹斗伍升付<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流來田不毛巨員牟種肆斗付<하원 강성택 씨 전답문서>

不毛巨는 ‘불목케’, 佛木堂은 ‘불목당’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不과 佛은 ‘불’의 음가자 표기, 毛는 ‘모’ 또는 유사음 ‘목’의 음가자 표  
기, 木은 ‘목’의 음가자 표기, 巨는 ‘케’의 일부음 ‘거’의 음가자 표기, 堂은 ‘당’

의 훈독자 표기이다.

‘불목캐’와 ‘불목당’은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지명이자 당명이다. 『서귀포시 지명유래집』에 의하면, “불목당/불목당/굴목당:…큰 굴목이낭이 있었는데…굴목당이 불목당으로 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불목캐:붉은 흙이 있는 목이라 하여 ‘불목캐’라 부른다”고 하였다. 이 책의 설명은 ‘불목당’의 ‘불목’과 ‘불목캐’의 ‘불목’의 뜻을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것은 같은 뜻을 가진 것이다. ‘불목’을 ‘불레낭’(‘보리장나무’의 제주방언)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캐’는 여러 잡풀들이 자라고 있는 들판의 일정한 지대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당은 당집을 이른다.

③ 無仇於尾·茂九尾·無巨於未·無仇尾·撫仇奄伊[무구어미]

價本段舅父前衿得爲有在無仇於尾員皮牟拾貳斗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他處無路乙仍于父主衿得爲在茂九尾員皮牟拾斗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祖上流來爲有在無巨於未員皮牟貳拾斗付內<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無仇尾員流來田牟種貳拾伍斗付<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價本段他無變通故仲子處衿得畚撫仇奄伊員租種壹斗付<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無仇於尾·茂九尾·無巨於未·無仇尾·撫仇奄伊 등은 ‘무구어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無와 撫, 茂는 ‘무’의 음가자 표기, 仇와 九는 ‘구’의 음가자 표기, 巨는 ‘구’의 유사음 ‘거’의 음가자 표기, 於是 ‘어’의 음가자 표기, 奄은 ‘엄’의 음가자 표기, 尾와 未는 ‘미’의 음가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월평동의 한 지명으로, 오늘날은 ‘무고래미’(『한국지명총람 16』 p.501), ‘무그래미’(『서귀포시지명유래집』 p.459)로 남아있다. 묘비에는 宿雲이 보이는데, [묵은-] 또는 [묵운-]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본래 소리는 ‘무구어미’ 또는 ‘묵은엄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加上伊洞·加上洞[가상이골·가상이굴]

下院里西邊加上伊洞員皮车拾參斗付只<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價本段祖父主買得田在於大靜下院境內加上洞員皮车拾參斗付<대포 이지환 씨 전답문서>

加上伊洞·加上洞은 '가상이골'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加는 '가'의 음가자 표기, 上은 '상'의 음가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 洞은 '골' 또는 변음 '굴'의 훈독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16』에는 “개상골:노루오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서귀포시지명유래집』에는 “가상골물/계상골:하원동 1434번지 일대이다”고 하였다. 『하원향토지』 ‘지명유래’ 편에서는 ‘개상골물’이라 했고, 같은 책의 지도(p.207)에는 ‘가상골’이라 하였다. ‘개상, 계상’ 등은 ‘가상’의 변음으로 보이는데, ‘가상’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⑤ 地莊泉·地壯泉·地莊泉味[지장세미]

金鳳智處買得起耕爲如乎地莊泉畝租種陸□付只<의귀리 김만일 후손가의 전답문서>  
烘爐面地壯泉員好音畝租種肆斗付只<의귀리 김만일 후손가의 전답문서>  
矣身段伏在於烘爐里地境地莊泉味同人先世畝庫之側<의귀리 김만일 후손가의 전답문서>

地莊泉·地壯泉·地莊泉味은 ‘지장세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地는 ‘지’의 음가자 표기, 莊과 壯은 ‘장’의 음가자 표기, 泉은 ‘침>쌌’의 음가자 표기,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한 지명이다. 서흥동 마을지인 『西烘爐』(1996:53)에는 ‘지장새미물’이라 하고 한자로 地藏泉, 智藏泉, 池獎泉 등으로 표기하였다. ‘세미’는 ‘쌌’의 제주방언이다. 그러나 ‘지장’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⑥ 竝古味·竝古未[굴고미]

父前成婚別得古城竝古味里內員各氏代田皮车壹石付<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妻叔母夫許竝古未里以南三南大員<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竝古味·竝古未는 ‘굴고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竝은 ‘둠’의 혼독자 표기, 古는 ‘고’의 음가자 표기, 味와 未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애월읍 고성리 ‘항바두리’ 성 옆을 흐르는 내를 이르는 이름이다. 민간에서는 ‘골기미, 골고미, 골구미’ (『한국지명총람 16』) 등으로 불린다. 억지로 분석하고 해석하면 ‘골[谷]+금(갈라지지 않고 터지기만 한 흔적)+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⑦ 押浦[압개]

外邊傳來郭支岳押浦員皮牟貳石付只印<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郭岳押浦員皮牟貳石付只<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押浦는 ‘압개’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押은 ‘압>앞’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혼가자 표기이다.

애월읍 광지리에 있는 한 지명으로, 광지오름[郭支岳] 굽부리 안에 있는 지명이다. 한글학회(1986:421)과 오성찬(1992:77) 등에서는 ‘앞개’로 표기하였는데, 전자는 지명분류를 ‘개’라고 하였고, 후자는 ‘들’이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앞개, 앞개통’이라고 하고 주변의 묘 비석에는 ‘亞邑介, 狎浦, 앞개’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압’은 ‘압>앞’의 변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는 쉬 풀리지 않는다.

⑧ 尔稀川[마희내·머희내]

價本段出處無路故勢不得已尔稀川員祖上傳來畊食畚陸片合租種柒升付只<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의 전답문서>

尔稀川은 ‘마희내’ 또는 유사음 ‘머희내’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尔는 ‘마’의 또는 유사음 ‘머’의 음가자 표기, 稀는 ‘희’ 또는 유사음 ‘히’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내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주로 ‘머으내’

로 남아있다. 옛 연대이름으로 尙希川烟臺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이를 흐르는 내를 '마홀천' (尙吃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회/마히, 머회/머히'는 '머홀' [磊]이 변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⑨ 有叱木夫[잇남부]

祖上流來田有叱木夫員口庫合<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有叱木夫는 '잇남부'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有는 '잇'의 훈가자 표기, 叱은 '잇'의 말음 'ㅅ'의 음가자 표기, 木은 '남'의 훈가자 표기, 夫는 '부'의 음가자 표기이다.

애월읍 상가리 동남쪽에 있는 한 지명인데, 한글학회(1986)에는 '잉나부뭇'으로 표기되어 있다. '잇남부'든 그의 변음 '잉나부'든 그 소리도 확실하지 않고 뜻도 확실하지 않다.

3) 뜻과 지형지물은 파악되나 소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지명에서 뜻과 지형지물이 파악되면 소리를 유추 또는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뜻과 지형지물은 파악되나 소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은 좀 생각해보아야 한다.

① 於音非[어름비]

於音非馬落洞員父主前衿得田麻子壹斗伍升付只<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於音非里東邊員流來田粟壹斗參升付只印<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於音非는 '어름비'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於音은 '얼음[어름]'의 음가자 결합 표기, 非는 '비'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애월읍 어음리를 이르는 옛 이름이다. '어름비'는 옛 기록에 氷非로 표기되어 '얼음[어름]'과 관련시킬 수 있다. 그런데 '비'는 딱히 대응시킬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민간에서 '어린비, 어림비, 어린빌레, 어림빌레' 등으로 부르는 것

으로 보아 ‘비’는 ‘빌레’의 줄임말임을 추정할 뿐이다. 문제는 적어도 고려시대에 ‘빌레’의 한자차용표기로 非만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빌레’의 변음 ‘비레>비’가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非乙於池·非於池[빌레못]

非乙於池東邊員王石田員粟壹斗付<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非於池東邊員安汝星處買得田粟參斗付只<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非乙於池·非於池는 ‘빌레못’ 또는 ‘비레못’의 한자차용표기이다. 非乙은 ‘빌’의 음가자 표기, 非는 ‘비’ 또는 ‘빌’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於는 ‘어’ 또는 ‘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池는 ‘못’의 음가자 표기이다.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한 지명이다. ‘빌레’는 ‘너럭바위’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이런 너럭바위에 물이 고여서 못이 된 곳을 ‘빌레못’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완전한 한자차용표기 非乙於와 非於는 ‘빌레’와 쉽게 대응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빌레못’이란 지명은 제주도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에 지역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음 예문에 보이는 論濱伊飛來[논황이빌레]는 ‘빌레’의 음가자 결합 표기인 飛於보다는 더 정확히 표기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論濱伊飛來[논황이빌레]의 소리도 한글학회(1986:381)에서는 ‘논황이빌레’로 조사되었는데, 온평리(1991:35)와 남제주군(1996:428)에서는 ‘노녕이빌레’라고 표기하여, 5~6년 사이에 ‘논황이’가 ‘노녕이’로 표기되어 소리는 물론 뜻을 추정하기가 더 어렵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故流來是在所謂論濱伊飛來西北邊員稷種壹斗付只<온평리 고문서>

③ 府拒永[부거영]

所謂府拒永北邊員皮牟柒斗付只田<온평리 고문서>

府拒永은 ‘부거영’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府는 ‘부’의 음가자 표기, 拒는 ‘거’의 음가자 표기, 永은 ‘영’의 음가자 표기이다.

성산읍 온평리의 한 지명이다. 민간에서는 '부개늪, 부개늪'(온평리, 1991:30 ; 남제주군, 1996:435) 정도로 부르고, 한자로 浮魚水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고문서의 한자차용표기와 민간의 음성과 표기가 많이 달라져서 소리와 뜻을 쉽게 추정해내기 어렵다.

④ 斗於水[두러물]

價本段所謂斗於水北東邊員皮牟柒斗付只<온평리 고문서>

斗於水은 '두어물'의 한자차용표기로 보이고, 민간의 음성형을 고려하면 '두러물'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斗은 '두'의 음가자 표기, 於는 '러'의 모음 '어'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의 훈독자 표기이다.

성산읍 온평리의 한 지명이다. 민간에서는 '두러물'(온평리, 1991:28 ; 남제주군, 1996:430)이라 하고, '뚜럼(바보)의 형국(?)'(온평리, 1991:28)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러'가 과연 제주방언 '뚜럼'의 변음인지 의심스럽다.

⑤ 鑑朴伊水[감배기물], 監伏其物[감보기물]

所謂鑑朴伊水員米粟陸升付<온평리 고문서>

所謂監伏其物北邊員稷種壹斗付只田<온평리 고문서>

鑑朴伊水는 민간에 남아 있는 음성형을 고려할 때 '감백이물[감배기물]'을 표기한 것이고, 監伏其物은 '감복이물[감보기물]'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鑑과 監은 '감'의 음가자 표기, 朴은 '박'의 변음 '백'의 음가자 표기, 伏은 '복'의 음가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 其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토지대장 등에서 볼 수 있는 甘朴水는 '감백이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성산읍 온평리의 한 지명이다. 민간에서는 '감백이물[감배기물]'이라 하여, '감 돌아 드는 물'(온평리, 1991:28 ; 남제주군, 1996:424)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형을 고려하면 '감배기, 감복이'는 '감부기'의 옛말인 '감보기, 감복이'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4) 뜻과 소리는 파악되나 지형지물이 확실하지 않은 것

##### ① 怪泉味[퀘세미·켓세미]

他無別給之物乙仍于怪泉味員牟拾斗落只<장전 강태복 씨 전답문서>

怪泉味는 ‘퀘세미·켓세미’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怪는 ‘괴’의 유사음 ‘퀘’의 음가자 표기, 泉은 ‘샘’의 제주방언 ‘심>쌌’의 혼독자 표기,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림읍 금악리의 한 지명으로 보이는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금악리에 ‘켓동산’이란 산과 자연마을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일대에 있었던 샘 이름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뿐이다.

##### ② 姑未池·古味池·姑池[고미못]

姑未池員四庫合粟伍斗付只<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古味池員流來田粟壹斗伍升付只印<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姑池員祖上流來衿得田粟壹斗付<금악리 수산강씨 전답문서>

姑未池·古味池·姑池는 ‘고미못’ 정도의 소리를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姑와 古는 ‘고’의 음가자 표기, 未와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 池는 ‘못’의 혼독자 표기이다.

한림읍 금악리의 한 지명으로 보이나, 민간에서 그에 대응하는 소리를 찾기 어렵다. 다만 ‘고스밋빌레·고시밋빌레’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므로, ‘고스미·고시미’의 불완전한 표기가 ‘고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스미·고시미’ 또는 ‘고미’의 소리는 물론 뜻도 확실하지 않다.

### 3. 마무리

제주지역 고문서에 나타나는 지명의 올바른 해독은 제주지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소리와 뜻을 찾아내고 그 소리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라진 제주방언을 찾고 잘못 전달되고 잘못 해석되는 제주지명의 바른 소리와 뜻을 찾는 것은 제주문화의 원류를 되찾는 밑거름이 된다.

아직도 우리는 잘못된 한자표기에 의한 지명 때문에 곤혹을 치를 때가 많다. 지금이라도 지명의 바른 소리와 바른 뜻을 찾아 체계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창석(1996), “해제”,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창석(2001), 『제주도 고문서 연구』(탐라문화학술총서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지홍(1986),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서귀포시 색달동(1996), 『색달마을지』.  
서귀포시 서홍동(1996), 『서홍로』.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지명유래집』.  
성산읍 온평리(1991), 『온평리지』.  
오성찬(1992),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오창명(1996),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조선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하원마을회(1999), 『하원향토지』.  
한글학회(1986), 『한국 지명 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

# 휘 보

## ■ 학술행사

### □ 2002년도 탐라문화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 주 제 : 지명과 지명연구
- 일 시 : 2002년 11월 15일(금요일) 14:00 ~ 18:00
- 장 소 : 제주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
- 논문발표
  - 居伐牟羅와 耽牟羅 / 南豊鉉
  - 久米島の海の地名 / 仲村 昌尙
  - 구메지마(久米島)의 바다 지명 / 나카무라 마사나오
  - 中國의 現代 地名標準化 小考 / 田景
  - 濟州島 古文書의 地名 / 강영봉 · 오창명

### □ 『탐라문화』 23호 게재 대상 논문 발표회

- 일 시 : 2003년 2월 5일
- 장 소 : 인문대학 대학원 세미나실
- 발표논문(총 11편)
  -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 김동윤
  - 飛揚島 關聯文件 小考/고창석
  - 高麗 肅宗 10年 '耽羅郡' 設置 考察 / 秦榮一
  - 제주도 전통 사회의 옹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 송성대 · 오영심
  -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 황경수
  -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방안 / 송재호
  - 조선 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 居伐牟羅와 耽牟羅 / 南豊鉉
  - 久米島の海岸·海中地名 / 나카무라 마사나오(仲村 昌尙)
  - 구메마의 해안·海中地名 / 김영희 역

- 中國의 現代 地名標準化 小考 / 田景
- 濟州島 古文書의 地名 試攷 / 강영봉·오창명

□ 2003 탐라문화연구소 발전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2. 12. 19~20 (1박2일간)
- 장 소 : 제주휘트니스타운
- 발표 및 토론
  - 발표 : 탐라문화연구소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 강영봉
  - 토론 : 현승환 강정식 문순덕 김동윤 오창명 진관훈

■ 각종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

○ 용역

- 제주시 관내 금석문 조사(제주시)
- 북제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북제주군)
- 한국의 해양문화 : 제주도 해역 (해양수산부)
- 제주도민의 생활외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한 한국어대본(제주도)
-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문화 원형 콘텐츠 개발(서울시스템)

○ 문화재 지표조사

- 제주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토석채취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남제주군 하천리 토석채취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블랙스톤 리조트 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제주 수농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주요회의

□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년 4월 4일
- 장 소 : 탐라문화연구소 사무실

- 주요 안건 : 2002년 발전과제 선정  
2002년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002년 각종 예산 심의

□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
- 장 소 : 탐라문화연구소
- 주요 안건 : 각종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

□ 『탐라문화』 23호 발간 1차 편집 회의

- 일 시 : 2002년 10월 30일
- 장 소 : 탐라문화연구소
- 편집위원 : 강영봉 조성운 허남춘 현승환 김동전
- 회의안건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논문 1편 당 2인)  
편집 및 발간 일정 토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 『탐라문화』 23호 발간 2차 편집회의

- 일 시 : 2001년 12월 10일
- 장 소 : 탐라문화연구소
- 안 건 : 심사완료 논문에 대한 게재 결정  
발간 세부 일정 논의

▣ 발간물

- 『탐라문화』 23호
- 탐라문화학술총서 2호 『제주도 포구연구』(고광민)
- 『제주설화집성(1)』(영인본)
- 『제주시비석일람』(제주시 용역 보고서)
- 탐라문화총서(18) 『부해문고(下)』
- 『한국의 해양문화』 전 8권 중 『제주의 해양문화』(해양수산부 용역 보고서)

- 『복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복제주군 용역 보고서)
- 『제주도민의 생활외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한 한국어대본』(제주도 보고서)
- 『제주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복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토석채취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남제주군 하천리 토석채취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블랙스톤 리조트 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